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 주성호가 사업하는 선박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마식령스키장 건설장을 또 다시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성호가 사업하는 선박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제판작장, 부분조립장, 총조립장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배우며 정형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배들을 무어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선박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우고 완강하게 투쟁하고 있는 로동계급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이 공장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것은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가슴마다에 세계를 굽어보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려는 아심만만한 배짱과 승리에 대한 신심, 미래에 대한 락관이

넘쳐흐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최첨단을 돌파하는데 대한 당의 사상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빛나는 현실로 꽂아우기 위해 혼신분투하고 있는 자랑스럽고 용감한 로동계급들이 있는 한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배들을 척척 무어낼 수 있는 강력한 선박공업기지들이 창설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일대 파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선박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현대적인 배들을 무어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

운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후공격전의 기상이 나래지고 있는 마식령스키장 건설장을 또다시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먼저 특색있게 꾸려지고 있는 호텔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호텔을 산골맛이 나게, 자연환경과 친숙하게 잘 꾸리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북도와 침실 등 호텔의 모든 요소오소가 산골냄새가 푸푹 난다고, 마치 자연 속에 들어온 것만 같은 기분이라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초, 중급주로 휴식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완공된 여러 스키주로도 기쁨속에 보아주시면서 건설자들이 공법의 요구대로 주로를 잘

닦았으며 푸른 잔디까지 정성껏 심어놓으니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 10월 15일에 대화봉에 첫눈이 내리었으며 11월 중순부터 눈이 본격적으로 내린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식령스키장이 겨울을 부르고 겨울이 마식령스키장 완공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시 구상하고 발기한 마식령스키장 건설이 이제는 완공을 눈앞에 두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군인건설자들의 공로이며 그들의 영웅적위훈이 높은 자랑찬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식령스키장 건설을 군대에 맡기기를 정말 잘하였다 고, 인민군대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마식령속도』라는 새로운 시대어가 인민군대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궁지이고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올해에만도 문수물놀이 장과 미림승마구락부 건설을 비롯하여 인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제 마식령스키장까지 완공되면 마식령지구에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될 것이다, 현대적인 스키장에서 웃고 떠들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혁명을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뵙게 된 건설자들이 결정에 겨워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자들에게 오래오래 손저어주시며 마식령스키장 건설에 참가한 전체 건설자들은 모두가 애국자들이라고, 그들이 세우 위훈은 부강 조국 건설력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마식령스키장을 세상에 둘도 없는 스키장으로 훌륭히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 전투임무수행 중에 희생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790군부대 용사들의 묘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투임무를 수행하다가 장렬하게 희생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790군부대 용사들의 묘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용사들의 묘 앞에 꽂송이를 진정하시고 묵상하시였다.

동행한 조선로동당과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용사들의 묘에 꽂송이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 해병들

였다고, 이렇게 용사들을 안장하고 보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수호는 희생도 각오해야 하지만 용사들이 너무도 젊은 나이에 우리결을 떠난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용사들의 묘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다가 묘비에는 묘주의 이름이 있어야지, 이 동무들의 묘주는 내

가 되겠소, 묘비에 나의 이름을 써 넣으시오, 묘주의 이름까지 써 놓아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소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기에 누워 있는 용사들은 모두 자신의 전우, 동지들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최고사령관과 함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생념원을 풀어야 할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지만 전사는 조국의

명령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를 값 높은 희생으로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기 초소를 굳건히 지켰으며 전투 명령을 목숨바쳐 집행한 용사들의 위훈과 고귀한 정신세계를 군부대의 해병들은 물론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전국과수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진행

전국과수부문과 학기술발표회 조선과학기술자연계학회 주최로 5일과 6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과수부문 생산단위들과 과학, 교육기관의 과학자, 기술자, 현장인력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과수부문 생산, 재배, 병해충, 농기계 분야로 나뉘어 열린 발표회에는 과수원협동조합, 농업청, 농업과학원,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속천농업대학 등에서 내놓은 130여 건의 연구논문이 제출되었다.

참가자들은 나라의 과수업 발전에 쟁아울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영적을 길이 빛내여 대량생산체계 확립(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포도원조성을 위한 포도나무모생산에서 얻은 경험(사리원과수농장), 천연향나노분자료들을 발굴하였다.

새로운 과일나무모와 흥높은 농약, 농기계 생산방법(평양과수농장)을 비롯한 논문들이 큰 평가를 받았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내놓은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본사기자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주체사상연구소, 조선과 친선협회 영국지부가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장의 침략전쟁연습을 규탄하여 10월 2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침략전쟁연습은 박근혜당의 반공화국책 등이 극도에 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주체사상연구소, 조선과 친선협회 영국지부가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장의 침략전쟁연습을 규탄하여 10월 2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본사기자

## 영국단체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침략전쟁연습을 규탄

전쟁연습은 남조선이 미국과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 전쟁각본까지 짜놓고 조선에 대한 핵선제타격기 도를 토착화로 드러내놓고 있는 속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더욱 위험천만한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피뢰호전광

들이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 있는 북침전쟁연습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심히 파괴되고 정세는 전쟁겁쟁이에 치닫고 있다.

이번 전쟁연습은 미국이 떠드는 『평화』라령의 허위성과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피뢰호전광들은 조선을 반대하는 온갖 전쟁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선군으로 존엄높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의 인민들과 어깨걸고 함

께 나아갈 것이다. 세계 전보적인 인민들이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뛰쳐나설 것을 호소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은 하나다!

양키는 물려가라!

박근혜피뢰정권을 타도하자!

본사기자

## 외세공조는 대결공조, 전쟁공조

외세와 함께 『제재』 요워하며 동족을 질식시키기 위한 국제공조체동에 미쳐 돌아가는가 하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떠들며 외세와 약한 북침전쟁 소동에 매일과 같이 광분하고 있다.

남조선에 현 『정권』이 들어선 후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스털스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최신 미국해전쟁장비들과 타격수단들이 더 빈번히, 무시로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어와

돌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미국 상선을 등에 업고 그 누구의 『도발원점과 지원, 지휘 세력초토화』니, 『선제타격』이니, 『월치한 응징』이니 하여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벌리는 외세 공조는 대결공조, 반통일적 인 전쟁공조와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은

역까지 동원하여 공화국을 선제타격한다는 『맞춤형억제전략』을 확정 발표하는데 이르렀다.

하여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나 순간의 오만으로도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오늘의 사태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물어오

외세에 의해 분열을 강요한 우리 민족은 이제 또 다시 민족의 리익과 안전을 미국의 핵전쟁책동의 제물로 내맡길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문제는 민족자주의 링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로 해결될 수 있다.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하고 자기 민족과 공조하는데 민족의 화해도 있고 통일이 있다.

세세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공조의 길을 향한 밝혀주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계에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내외호전세력의 반통일적인 전쟁공조책동을 것 부시고 민족공조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힘을 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계에는 북남공동선언의 진면모이다.

김연희



인민들이 좋아하는 깨생산을 다그치고 있다.  
- 평양 깨생산장에서 -

# 건설의 불바람을 일으키시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옹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한 정도에 의하여 오늘 공화국은 날마다 홀륭히 변貌되어가고 있다.

창전거리와 인민국장, 룽라인민유원지, 류경원을 비롯한 창조물들이 건설된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에는 누구나 가보고 감탄을 금치 못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류경구강병원과 육류아동병원,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가 건설되었으며 마식령스끼장이 완공될 그날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14분만에 살림집 한세대를 조립한 기적적인 평양속도를 창조하던 그때처럼, 80년대속도, 90년대속도를 창조하며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던 그날처럼 지금 온 나라 도처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약동하는 짚음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화국의 장엄한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옹대한 구상과 혁명한 정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지난 5월 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일떠서고 있는 문수물놀

이장건설장을 찾으시였다.

방대한 면적에 야외 몰놀이장, 각종 야외체육시설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대규모의 종합적인 물놀이장공사현장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건설력량과 기재들의 상태, 자재보장대책문제 등 공사진행 정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하시고 파업과 방도들도 제시하면서 문수물놀이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리자고 말씀하시였다.

문명국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정도의 자욱은 그때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5월 말 스키장건설이 한창인 마식령의 힘준한 산밭에 새겨졌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건설해도 통이 크게,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건설해야 한다고, 마식령스끼장을 세계적인 스키장으로 꾸리려는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면서 건설을 다그치는 터에서는 구체적인 파업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에게 마식령스끼장건설장에서 선군시대의 새로운

공격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데 대한 호소문을 보내시였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그이의 혁사적인 호소문을 받들어 전체 군민은 정신력을 총폭발하여 은하과학자거리, 미림승마구락부, 육류아동병원을 7개월 남짓한 기간에, 문수물놀이장은 불과 9개월동안에 끝내는 자랑찬 기적을 창조하였다.

세월을 주름잡는 『마식령속도』 창조의 열풍속에 솟아난 모든 기념비적건축물들은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만드시기 위해 끌없는 그로고를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뜻과 인민사랑의 세계를 응변으로 보여주는 증견자라고 할수 있다.

형성안만 해도 113차례나 지도해주시며 낮에도 찾으시고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찾으시며 자그마한 손색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한 보살피심과지도를 주신 문수물놀이장, 몸소 말을 타시고 원주의 긴 구간을 달리시며 주로의 상태도 구체적으로 가늠해보시며 그만하면 주로의 상태가 좋다고, 승마운동을 하기 적합한 곳이라고, 위대한 장군께서 여러차

례 다녀가신 이곳을 현대적인 승마장으로 개건하면 장군님께서 남기신 고귀한 유산을 더 잘 꾸리고 더 공고히 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시며 온갖 심혈과로고를 다 기울이신 미림승마구락부, 웃음비 내리던 지난 7월 건설장을 찾으시여 건설을 빨리 끝낼수 있는 방향과 방도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유파아동병원...

며칠 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식령스끼장건설장을 또다시 돌아보시였다.

완공단계에 이른 호텔들과, 중급주류숙식장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지난 10월 15일에 대화봉에 첫눈이 내리였으며 11월 중순부터 눈이 본격적으로 내린다는 것을 아시고 마식령스끼장 완공을 기다린다고 하시면서 완공의 그날을 그려보시며 현대적인 스키장에서 웃고 떠들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혁명을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하시였다.

사람들은 인민사랑의 끝없는 장정을 이어가시며 건설의 불바람을 일으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정도와 고매한 덕망에서 사회주의문명국의 래일을 굳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지금 조국땅에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 어 일떠서고 있다. 어느것이나 다 특색있으면서도 문명강국의 체모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설계되고 완공되었으며 또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창조물들은 바로 평도자의 옹대한 구상과 목표, 리상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공화국은 세계가 우러러 보는 천하제일 강국으로,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지상락원으로 일떠세우시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구상이고 목표이며 결실인 것이다.

인민들은 행복의 상상봉우에,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내세워주시려는 그이의 구상과 목표는 참으로 옹대하다.

평도자의 원대한 구상과 목표, 위대한 혁신이 있어 공화국은 약동하는 짚음으로 억센 기상 나래며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가고 있다.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언제나 기준을 높이 세우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만족짜리로 만들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옹대한 건설구상과 혁명한 정도가 있어 인민의 행복, 기쁨의 웃음소리 날로 넘쳐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수물놀이장 형성안을 무려 100여 차례나 보아주시고 형식과 내용, 리용적측면에서 세계적수준으로 꾸리도록 지도해주시고 몸소 현장에까지 여러차례 나오시여 건설이 높은 질적수준에서 빨리 진척되도록 이끄시였다.

은하과학자거리 살림집건설장을 찾으시었을 때에는 살림집을 손색이 없이 꾸려주라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금방석에 앉혀준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과학자들에게 금방석과 같은 집을 지어주어

거기서 생활하게 하자고 은정 깊은 말씀도 하시였다.

며칠 전 마식령스끼장건설장을 찾으시여서는 우리는 하나를 건설해도 통이 크게,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건설해야 한다고, 마식령스끼장을 세계적인 스키장으로 꾸리려는 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며 세상에 둘도 없는 스키장으로 훌륭히 완공하도록 그 방향과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였다.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언제나 기준을 높이 세우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만족짜리로 만들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옹대한 건설구상과 혁명한 정도가 있어 인민의 행

복, 기쁨의 웃음소리 날로 넘쳐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수물놀이장 형성안을 무려 100여 차례나 보아주시고 형식과 내용, 리용적측면에서 세계적수준으로 꾸리도록 지도해주시고 몸소 현장에까지 여러차례 나오시여 건설이 높은 질적수준에서 빨리 진척되도록 이끄시였다.

비범한 짚음으로 출중한 평도력을 지니신 철세위인을 모시여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꽂되고 사회주의부귀영화가 이 땅에 펼쳐질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림소영

없이 걸고걸으신다.

하기에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동일뉴스』도 창전거리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을 전하면서 앞으로 가구를 설계하거나 제작할 때 인민들이 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좋게 선 편리성, 후 미학성의 원칙에서 거울을 놓아주는것을 비롯하여 물놀이장을 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물매를 잘 지어주어 바탕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과 설계가들조차 미처 생각

## 선 편리성, 후 미학성의 원칙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체육관건보수정형을 료해하시면서는 들판과 경기실황을 한눈에 볼수 있게 실내에 대형전광판을 측면뿐 아니라 4면체로 된 전광판을 경기홀 천정 중간부분에 설치해주어야 한다고 이를 시리고 완공을 앞둔 문수물놀이장은 물론 탈의실에 거울을 설치하여 못한 점들에 이르기까지 다 찾아내시어 인민들이 사용하는데 자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아동병원을 돌아보시면서는 입원실에 놓인 침대수도 헤아려보시며 한 아이가 깨여나 울면 모든 아이들이 다 따라서 울게 된다고, 그러니 입원실의 침대수

하지 못한 점들에 이르기까지 다 찾아내시어 인민들이 사용하는데 자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으신 그이이시기 자신께서는 그처럼 머나먼 길을 승용차로 장시간 달려오시고도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이 넘쳐날것을 생각하면 절로 마음이 흐뭇해진다시며 온갖 불편과 피로를 강그리 잊으시고 현지지도길을 끊임

없이 걸고걸으신다.

하기에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동일뉴스』도 창전거리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을 전하면서 앞으로 가구를 설계하거나 제작할 때 인민들이 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좋게 선 편리성, 후 미학성의 원칙에서 거울을 놓아주는것을 비롯하여 물놀이장을 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인민제일주의를 천하지본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창조물, 인민을 위한 학원을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인민사랑의 위대한 평도자이시다.

본사기자 리경월

## 대상의 특성에 맞게

주제 102(2013)년 9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원공단계에 따른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찾으시였다.

모든 조건을 세계적수준에서 갖춘 완벽한 물놀이장

으로 전설할때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신 원수님께서는 실내물놀이장의 외벽을 보시고 물놀이장의 특성에 맞게 각별히 고려해주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에게 마식령스끼

장건설장에서 선군시대의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물놀이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세부적인 문제들까지 일일이 깨우쳐주시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해 오늘 문수물놀이장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우리식의 위대한 창조물로 솟아오를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였다.

그림을 그려주시었다.

인민을 위한 설계가가 되시여 물소 그림을 그려주시는 원수님의 모습은 친정 친언버이의 모습그대로 이시였다.

본사기자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고 계신다.

지난해 5월 원공을 앞둔 창전거리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식당에 들리시여 몸소 식당의 자도에 앉아보시면서 가구를 설계하거나 제작할 때 인민들이 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보기에 맞게 우리식으로!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였다.

그림을 그려주시었다.

인민을 위한 설계가가 되시여 물소 그림을 그려주시는 원수님의 모습은 친정 친언버이의 모습그대로 이시였다.

본사기자

청색을 칠하였는데 모래불과 같은 색을 칠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무대바닥을 모래가 파도에 밀려나온것처럼 모래와 같은 색깔로 처리하면 조화가 더 잘

된다

라고 하시면서 순수 수첩에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고 계신다.

지난해 5월 원공을 앞둔 창전거리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식당에 들리시여 몸소 식당의 자도에 앉아보시면서 가구를 설계하거나 제작할 때 인민들이 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맞게 우리식으로!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였다.

그림을 그려주시었다.

인민을 위한 설계가가 되시여 물소 그림을 그려주시는 원수님의 모습은 친정 친언버이의 모습그대로 이시였다.

본사기자

청색을 칠하였는데 모래불과 같은 색을 칠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무대바닥을 모래가 파도에 밀려나온것처럼 모래와 같은 색깔로 처리하면 조화가 더 잘

된다

라고 하시면서 순수 수첩에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고 계신다.

지난해 5월 원공을 앞둔 창전거리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식당에 들리시여 몸소 식당의 자도에 앉아보시면서 가구를 설계하거나 제작할 때 인민들이 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맞게 우리식으로!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였다.

그림을 그려주시었다.

인민을 위한 설계가가 되시여 물소 그림을 그려주시는 원수님의 모습은 친정 친언버이의 모습그대로 이시였다.

본사기자

청색을 칠하였는데 모래불과 같은 색을 칠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무대바닥을 모래가 파도에 밀려나온것처럼 모래와 같은 색깔로 처리하면 조화가 더 잘

된다

라고 하시면서 순수 수첩에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고 계신다.

지난해 5월 원공을 앞둔 창전거리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식당에 들리시여 몸소 식당의 자도에 앉아보시면서 가구를 설계하거나 제작할 때 인민들이 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맞게 우리식으로!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였다.

그림을 그려주시었다.

인민을 위한 설계가가 되시여 물소 그림을 그려주시는 원수님의 모습은 친정 친언버이의 모습그대로 이시였다.

본사기자

청색을 칠하였는데 모래불과 같은 색을 칠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무대바닥을 모래가 파도에 밀려나온것처럼 모래와 같은 색깔로 처리하면 조화가 더 잘

된다

라고 하시면서 순수 수첩에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고 계신다.

지난해 5월 원공을 앞둔 창전거리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식당에 들리시여 몸소 식당의 자도에 앉아보시면서 가구를 설계하거나 제작할 때 인민들이 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맞게 우리식으로!



# 유지가 아니라 해체되어야 한다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가 조작된 때로부터 35년이 지났다.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는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과 남조선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의 영구장악을 목적으로 미국에 의해 조작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5년에 진행된 제30차 유엔총회에서는 남조선에서 《유엔군》을 해체하고 《유엔군》의 기발아래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때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의 모자를 뒤집어쓰고 25년 간을 토를 끌어았던 미국은 남조선강점의 《법률》적구실을 더는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유엔군》의 간판을 도용하여 미군이 남조선군에 대해 행사해오던 작전지휘권을 상실할수 있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바빠맞은 미국은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통수권 장악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1978년 11월 7일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서둘러 조작한 것이다.

이로써 미군은 낚아빠진 《유엔군》의 모자대신 《련합군》이라는 새 모자를 쓰고 남조선을 그대로 태우았

았으며 《련합군》이라는 교묘한 형태로 남조선군의 지휘권을 계속 휘둘러왔다.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는 조작된 첫날부터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동일을 방해하는 침략전쟁기

으로 미국에 의해 조작되었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남조선을 공화국과 아시아를 침략하기 위한 전략상 요충지대로 주목하고 핵전초기지화하였으며 여기에 수만명의 미군을 향식적으로 주둔시키고 있다. 이른바 《련합군》의 창설과 작전지휘권의 장악은 이러한 교두보를 영원히 장악하여 침략전쟁수행에 남조선군을 미군의 대포방으로, 물격대로 써먹으려는 책동의 산물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미국은 남조선을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영원히 들어위기 위해 조선반도에서 분열정책을 고집하면서 남조선강점 미군을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는 무력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통일의 합성이 높이 올려나올 때마다 그 누구의 《위협》설을 내돌리며 《련합군사령부》를 내세워 대결을 고취하는 전쟁연습을 대대적으로 벌린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러한 침략기구, 반동일기구는 침략군의 철수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요구로 보나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갈망하는 시대의 흐름으로 보나 이미전에 해체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남조선과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

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계속 유지하려고 있다.

지금 이것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과거에 《유엔군》의 모자대신 《련합군》의 모자를 뒤집어쓰고 남조선군의 지휘권을 휘둘러온 것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현실은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세계에 대한 지배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는 미국이 남조선군을 계속 손아귀에

들어쥐고 저들의 대포방으로 리용하기 위해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와 같은 침략기구, 전쟁기구를 계속 유지하려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항시적인 대결과 전쟁불구를 몰아오는 범죄적인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하며 침략군, 강점자인 미국은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물려가야 한다.

그리고는 《공무원의 중립훼손》을 운운

하여 토의한것이 그것이다. 사령관직은 남조선군 합창장이 맡고 부사령관직은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이 맡는다는 《한미련합전구사령부》를 내오기로는 것은 곁으로는 지휘부를 남조선군이 행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알맹이는 다 빼먹고 빙강통만 넘겨주는 식이다.

최첨단기술이 동원되는 현대전쟁에서 기본은 정보와 그에 따른 작전 및 전술, 지휘자동화체계 등인데 이것을 모두 틀어쥐고있는 미국이 남조선군사령관의 단일자체를 그대로 따르리라고 기대하는것 자체가 터무니없

본사기자 리광성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의 내막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민심의 분노가 고조되며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적으로 나오고있다.

그들이 전국공무원로동조합(전공로)의 《선거개입》설을 들고나오며 득을 쓰고있는것이 이를 보여주고있다.

그리고는 《세

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이 전공로소속의 조로원들을 리용해 불법《선거》 운동》을 했다고 소란을 피우고있다.

그리고는 《공무원의 중립훼손》을 운운하면서 《철저한 수사》 니, 《진상조사》 니 하며 목에

벼리지 않고있는 미국이 남조선군을 계속 손아귀에 들어쥐고 저들의 대포방으로 리용하기 위해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와 같은 침략기구, 전쟁기구를 계속 유지하려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항시적인 대결과 전쟁불구를 몰아오는 범죄적인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하며 침략군, 강점자인 미국은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물려가야 한다.

본사기자 리광성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는 직후에 터져나온것, 이에 앞서 《자유청년련합》 등 국우단체들이 《전공로가 지난해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사실에 류의하면서 이것은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은 큰 정치적사건으로 번져지게 되었다.

당황한 보수당국은 이전 정보원 원장 원세훈을 사건의 제물로 버치는 한편 북남수뇌상봉담화록문제를 터뜨려 여론의 이목을 끌면서 드러났다.

하여 남조선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들을 처벌할것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시국선언이 러나 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국정감사》 과정에 《새누리당》과 정부원이 서로 결탁하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수사를 각방으로 방해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하여 남조선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들을 처벌할것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시국선언이 러나 되고 있다.

언이 러나 되고 있다. 인민들의 초불투쟁이 또다시 확대되는 등 정국은 혼란과 위기로 돌아들고 있다.

주악한 정치적집행위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보수집권세력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있는 것이다.

사례가 점점 힘해지자 바빠난 보수집권세력이 또다시 전공로의 《선거개입》이라는 낚아빠진 수법으로 판세를 뒤집어보려고 발악하고 있지만 그것은 물에 빠진 자지푸래기라도 잡는 격이다.

진상은 가리울수 없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것이 사회현상의 순리이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법이다. 날이 갈수록 지난해 남조선의 《대통령선거》에 정부원뿐 아니라 군부와 보훈처 등 권력기관들이 대규모적으로 개입된 사실이 하나하나 련이어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국정감사》 과정에 《새누리당》과 정부원이 서로 결탁하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수사를 각방으로 방해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하여 남조선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들을 처벌할것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시국선언이 러나 되고 있다.

언이 러나 되고 있다. 인민들의 초불투쟁이 또다시 확대되는 등 정국은 혼란과 위기로 돌아들고 있다.

주악한 정치적집행위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보수집권세력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있는 것이다.

사례가 점점 힘해지자 바빠난 보수집권세력이 또다시 전공로의 《선거개입》이라는 낚아빠진 수법으로 판세를 뒤집어보려고 발악하고 있지만 그것은 물에 빠진 자지푸래기라도 잡는 격이다.

진상은 가리울수 없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것이 사회현상의 순리이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성종삼

## 통할수 없는 《몰타기작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는 직후에 터져나온것, 이에 앞서 《자유청년련합》 등 국우단체들이 《전공로가 지난해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사실에 류의하면서 이것은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은 큰 정치적사건으로 번져지게 되었다.

당황한 보수당국은 이전 정보원 원장 원세훈을 사건의 제물로 버치는 한편 북남수뇌상봉담화록문제를 터뜨려 여론의 이목을 끌면서 드러났다.

하여 남조선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들을 처벌할것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시국선언이 러나 되고 있다.

언이 러나 되고 있다. 인민들의 초불투쟁이 또다시 확대되는 등 정국은 혼란과 위기로 돌아들고 있다.

주악한 정치적집행위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보수집권세력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있는 것이다.

사례가 점점 힘해지자 바빠난 보수집권세력이 또다시 전공로의 《선거개입》이라는 낚아빠진 수법으로 판세를 뒤집어보려고 발악하고 있지만 그것은 물에 빠진 자지푸래기라도 잡는 격이다.

진상은 가리울수 없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것이 사회현상의 순리이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성종삼

## 《정당파괴 민주압살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

### 당국의 통합진보당 해산책동에 강력히 항의

여 할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리승만, 박정희, 전두환, 로태우의 뒤를 이어 오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유신》 망령을 부활시켜 민주를 암살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은 민주화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세력으로 이어질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유신독재 막아내자!》, 《정당파괴 민주압살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라는 구호들을 웨쳤다.

이어 통합진보당 지도부성원들과 전국동민회총련맹, 청년련대 혁신성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은 초불집회를 선포한 날로 두고두고 기

그들은 손에 초불과 《진보당해산 즉각 중단》을 위해 두쟁한것때문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어야 한다면 농민들의 생존권투쟁은 민주화투쟁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라고 단죄하였다.

통합진보당 《국회》의 원김재연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다른아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저지르고있다고 하면서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은 박근혜 《정권》의 최후를 앞당길뿐이라고 경고하였다.

통합진보당 부산련제주의 원의원 김정현은 부정 《선거》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정권》의 최후를 앞당길뿐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들은 《정당파괴 민주압살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라는 구호들을 웨쳤다.

전국농민회총련맹의 장 리광성은 《유신》 독재부활, 《진급조치》 10호를 선포한 날로 두고두고 기

을 위해 두쟁한것때문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어야 한다면 농민들의 생존권투쟁은 민주화투쟁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라고 단죄하였다.

청년련대 대표 윤희숙은 부정 《선거》를 저지른 민주화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항의투쟁은 6일에도 계속되었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 의원들이 살발을 하고 무기한식동성에 돌입하였다.

그들은 《불법로조》 결정을 내린 보수당

자라나는 새 세대에게 옮겨온 혁신성원들을 《정당파괴 민주압살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라는 구호들을 웨쳤다.

파쇼경찰들이 달려들어 탄

압에 광분하는 속에서도 창

가자들은 투쟁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편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는 긴급모임을 가지고 박근혜가 앞장에 선 이번 폭거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단죄하였다.

《유신》독재의 뒤를 이은 파쇼 《정권》에 맞서 민주화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단죄하였다.

청년련대 대표 윤희숙은 부정 《선거》를 저지른 민주화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항의투쟁은 6일에도 계속되었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 의원들이 살발을 하고 무기한식동성에 돌입하였다.

그들은 《불법로조》 결정을 내린 보수당

자라나는 새 세대에게

옮겨온 혁신성원들을 《정당파괴 민주압살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라는 구호들을 웨쳤다.

파쇼경찰들이 달려들어 탄

압에 광분하는 속에서도 창

을 휘두르고 있다.

본사기자 리광성

치미는 증오와 분노가 남녀의 하늘가에 터져 오른다.

10월 24일 그날은 신성한 민주교단이 파초의 칼날에 맞은 날 민주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이라고

한정의 아스팔트길에 피를 쏟으며 쓰러지면서도 파쇼Darkside에 맞섰던 민주화렬사들의 그 냉소중히 간직한 가슴들이다

6.15의 한뜻으로 북남의 교육자들 서로 손잡고 민족교육의 대화원 이루어 자고 교육자들과 교육자들 사이에 전진을 위해 6.15 공동체로 일떠세운다.

자라나는 새 세대에게 그 약속을 지켜나온다.

어찌 죄로 될수 있는가 민족의 단합을 위해 통일운동에 앞장선 그들이 어찌 《내부의 적》이 될수 있는가

보라. 《불법로조》 통보를 받은 그날

시

10월 24일

그날은

리철준



